

소통과정으로서 강의를 위한 몇 가지 전략

강의에 대한 오해

- 1) 강의는 교수자가 준비한 것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교수자는 강의를 빈 유리컵에 지식 또는 기술이라는 물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학생의 관점이 배제된 일방적인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다.
- 2) 강의의 주인공은 교수자 자신이고 학생은 관객으로 인식하여 교수자 혼자서 강의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- 3) 교수자는 공백을 두려워한다. 수업 중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당황한다.
- 4) 준비한 대로 정확하게 발표하려 한다. 상황에 상관없이 준비한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의존하게 되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.
- 5) 교수자는 청산유수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강의는 화려하게 개인기를 펼치는 쇼가 아니므로 학습자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가끔 말이 막히거나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강의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.

- 1) 강의는 교수자 중심의 일방통행식이 아니라, 학습자 중심의 문제제기식 교육(problem-posing education)이어야 한다.
- 2) 문제제기식 교육은 주어진 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,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강조한다.
- 3) 교수자는 제기된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. 교수자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보다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,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몸에 축적되는 것이 바로 산지식인 것이다.

민혜리
교수학습개발센터
교육지원부 연구교수

수업 중 눈맞춤

- 1) 수업을 할 때 교수자는 청중들과 눈맞춤(eye-contact)을 해야 한다. 어떤 실험에 의하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 훨씬 더 잘 기억한다. 시선을 교차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.
- 2) 수업을 할 때 학생들과 주어진 시간의 15% 이하로 눈맞춤을 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냉정함, 변명투, 미숙함, 자신감 결여, 신뢰성 결여 등의 이미지를 준다.
- 3) 반면, 교수자가 학생들과 85% 이상 눈맞춤을 할 경우에는 성실함·친근함·능숙함·자신감·신뢰감·당당함 등의 긍정적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준다.
- 4)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과 눈맞춤을 해야 한다. 청중규모가 큰 경우(50명 이상)에는 교실을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그 구획을 번갈아가면서 눈맞춤을 하면 된다.
- 5) 눈맞춤은 대충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'1인 1문장(One Sentence One Person)'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. 하나의 문장을 말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.

수업 중 공감대 형성하기

- 1)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개방적인 청취자가 되라.
- 2) 학생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라.
- 3)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.
- 4) 고개를 끄덕여라.